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2019. 4. 2.

관계부서 합동
제조업 고용창출효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중요성 부각

제조업 고용기여도 (14년, 한국은행) : (관광산업)18.9 > (서비스업)17.3 > (제조업)8.8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되며, 아시아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UNWTO)

세계관광시장 규모 : (17) 13억명 → (30) 18억명 (연평균성장률 2.9%)
여타 지역 관광객 규모(비중) : (17) 3.2억명 (24.4%) → (30) 5.3억명 (29.6%)

관광을 국가성장의 필수산업으로 판단한 일본 등 세계 각 국가는 법부처적 지원을 통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경제활성화 견인

일본 : 총리 주재 관광산업추진 각료회의(13)를 통해 적극적 비자지원, 규제완화 등 추진
프랑스 : 총리 주재 하외교부, 재정경제부,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등 17개 장관과 6개 도시 대표, 22평의 관광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관광위원회를 통해 관광정책 협의조정

우리는 경 정부 출범 이후 '국가관광전략회의(총리주재)'를 신설(17.12), 중장기 계획인 '관광진흥기본계획(18~22)'을 수립, 추진 중(9개 핵심정책과 61개 세부계획)

Ⅱ. 현황 및 문제점

국내관광산업의 현실

중국인 발한의 큰 폭 감소 이후, 방한시장 다변화로 외래관광객 규모가 회복세이나, '16년 외래관광객 방한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18년) 외래객 역대 2위 기록(1,535만명), 한국 제외 외래객 최초 1,000만명 돌파
방한외래객(만 명) : (14)1,420→(15)1,323→(16)1,724→(17)1,334→(18)1,535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불균형 심화(14~18년, 방한외국인 관광객 약 9% 증가, 내국인 해외여행객 약 78%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 확대

해외여행 국민(만 명) : (14)1,608 → (15)1,391 → (16)2,238 → (17)2,640 → (18)2,889
관광수지 적자 규모(억 $) : (14)21 → (15)68 → (16)69 → (17)147 → (18)1,32

GDP 내 관광산업 비중 및 고용 기여도가 세계평균에 비해 낮음

GDP 기여도 : (15) 5.0% → (16) 5.1% → (17) 4.7% → (18) 4.7%(세계 평균 10.1%)
고용 기여도 : (15) 5.6% → (16) 5.9% → (17) 5.3% → (18) 5.3%(세계 평균 10.5%)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는 높으나,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정책 상황(7대 임종 종사자 증가율 '16년 11.2% → '17년 7.8%)

일방향 평균임금 : 숙박업 247만원, 식음료서비스업(예행업 등) 220만원, 건설업 97만원, 제조업 38만원, 금융업 613만원(고용부, '18년 사업체노동조사)

국내외 관광객의 특정 지역(서울, 경기, 부산, 제주) 방문 집중 현상 지속

관광경쟁력은 상승하고 있으나 인접 경쟁국(중·일)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17년 관광경쟁력(WEF) : 한 19위(15년 29위), 중 15위(15년 17위), 일 4위(15년 9위)
주요 원인 진단

○ (방한시장 성장 문화) 사드배치, 북핵 문제 등 정치/외교적 요인 및 비자 등 출입불편으로 인해 신규시장 아웃바운드 수요 흑수 미흡
- 중국 방한 단체관광금지조치 지속, 경제적응상황으로 원일관계 악화
-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과 인도의 최근 5년간 약평균 방한관광객 증가율 8.4%(같은 기간 4개국 방일관광객 증가율 : 28.6%)

○ (해외여행 선호) 국민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 증시 분위기 확산 등 국민 여행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국내여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해외여행 비용감소(저비용항공(LCC), 에어비엔비, 힐튼 등) 및 색다른 체험과 경험을 증시하는 최근 여행트렌드 대응 부족
- 여행지선호도 : 해외여행(65.1%) > 국내여행(10.7%) (18 아웃바운드 현황, 관광공사)

⇒ 국민여행 지원, 방한외래객 유치를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확대

○ (환경변화 대응 부족) 전통적 관광에서 응용개발 산업으로의 페러다임 전환 과정 속, 전통 관광사업체의 대응력 부족으로 관광산업 전체 성장 문화(관광사업체 매출액 증가율 '16년 12% → '17년 4%)
- 여행지 관광도 조사 결과 신호 여행지 않은 비중 33%(전유에서, '16년 여행동향조사결과)
- 숙박업체 매매 : OTO 62.5%, 숙박업체 직접 14.1%, 중간매매 7.1% (전유에서, '18.1)

- 영세한 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고용환경 변화와 해외 OTO (온라인여행중개) 등의 외적요인에 취약
- 매출 10억 미만 사업체 86.1%, 종사자 10명 미만 82.8%, 비정규직 18.9%(17)
- 중형 여행사 평균 확대 (18년 11월까지 9개 vs '17년 5개)

⇒ 응용개발 환경에 대응한 관광기업 육성 등 관광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 (등용관광 핀평화상) 서울, 제주 외 국내 주요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및 접근성 부족으로 수도권 - 지역간 관광불균형 지속
- 부족한 외국여행 안내 표지와 낮은 대중교통 편의성 등은 개별관광객의 지역변경 주 장에 요인
- 한국의 경제적 7개국 평가 : 일본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 특히 ‘관광지 및 시설’, ‘관광안내’, ‘전시예술’ 부분에 높은 급차가 됨 (17년, ITA 여행료조사)
- 외래객 만족도조사 10개 항목 중 관광지 매력도 7위 (1위 친선, 2위 숙박, 3위 대중교통)
- 지역의 역량부족으로 관광사업체 특정지역에 집중, 숙박 등 관광객 편의제공 및 지역관광사업 운영에 어려움
- 관광사업체 서울 36.2%, 경기 13.0%, 제주 6.6%, 부산 6.0%, 전남 49.0% (후, 분포

⇒ 지역기반 집중 육성을 통해 관광 지역 분산, 내수활성화 등 관광 퍼뮤즈 확대

○ (개혁있는 관광콘텐츠 부족) 현재 하드웨어 중심 관광자원으로는 세계 관광자사의 변화와 국내외 관광객의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여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현재 노정
- 지자체 간 무분별한 개발 경쟁 등으로 관광 자원의 유사·증복 문제 대두
- 동영 케이블카, 현주 소금산 랜터리 성공 이후 타 지역 케이블카, 스파티실 설치 증가
- 도심 쇼핑 중심의 단조로운 관광행태 등 관광자 매력도에 대한 낮은 평가
- 방한 관광객 주요활동은 쇼핑(72.5%) - 식당(58.2%) - 시설생 관광(25.8%) 순, 방한 선택시 고려인 또한 62.2%이 가장 주목 요인(17년 기준 외래직접판정)

< 국가별 관광수요 유형 >

<table>
<thead>
<tr>
<th>국가</th>
<th>식당</th>
<th>술 &amp; 티</th>
<th>쇼핑 &amp; 레저</th>
<th>관광지</th>
<th>쉼터/숙박지</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일본</td>
<td>29.7%</td>
<td>8.8%</td>
<td>14.0%</td>
<td>26.1%</td>
<td>13.3%</td>
<td>2.0%</td>
</tr>
<tr>
<td>한국</td>
<td>46.0%</td>
<td>5.5%</td>
<td>12.4%</td>
<td>14.3%</td>
<td>6.7%</td>
<td>1.5%</td>
</tr>
<tr>
<td>주요국평균</td>
<td>26.5%</td>
<td>8.4%</td>
<td>22.1%</td>
<td>12.0%</td>
<td>8.7%</td>
<td>5.7%</td>
</tr>
</tbody>
</table>

⇒ 대한민국 관광의 이미지 혁신을 가져오 세계적 수준의 관광콘텐츠 확충
Ⅲ. 추진 방향

1. 정책환경 분석

(글로벌 관광시장) 관광산업 구조의 변화
- 국내외 관광객 모두 온라인으로 여행의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되면서 개별 자유여행, 모바일 이용, 해외 중심으로 수요 변화
- 초연결,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온라인 여행 증가(OTA) 등 플랫폼 경제-유료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구조 개편

(국내관광여건) 배분 시장 변화 속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 대두

<table>
<thead>
<tr>
<th>강점(Strength)</th>
<th>약점(Weakness)</th>
</tr>
</thead>
</table>
| • 중국(14억), 일본(13억) 등 대규모 관광시장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  
• K-pop 등 한국 기반으로 한국관광 호감도 존재  
• 한국 관광경쟁력(세계 19위) 대비 높은 문화 자원 경쟁력(WEF 기준 세계 12위)  
• ICT 경쟁력 확보(WEF 기준 세계 8위)  |
| •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정치-외교 상황, 국제정세 변화 등에 취약  
•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 및 주요활동이 특정지역 특정활동에 권중  
• 관광사업체의 영세성  
• 낮은 자원자원 경쟁력(WEF 기준 세계 114위) 및 관광객 서비스 인프라(WEF 기준 세계 50위)  
• 저가관광 문제, 기업간 불공정 경쟁 등 |

▶ (강점 부각) 한류, 문화자원 경쟁력 등 강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혁신
▶ (약점 보완) 방한시장 다변화와 지역 분산 추진,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table>
<thead>
<tr>
<th>기회(Opportunity)</th>
<th>위기(Threat)</th>
</tr>
</thead>
</table>
| •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BTS 활동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수가 증가  
• 설립, LCC 신규항목 및 중소항 제도 폐지  
• 세계관광시장의 확장 및 아시아지역 관광규모 빠른 성장  
• 세계관광시장 규모 17년 13억명  
| • 일본, 대만 등 역내 경쟁국의 공격적인 관광정책 추진  
• 일반, 대만 등 역내 경쟁국의 공격적인 관광정책 추진  
• 일자리 미흡, 중소기업 부진  
| • 내부 관광객이 주요 관광객이었던 전통적 관광지 중심화  
• 적정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관광지  
| • 국민 해외여행 3년만전 시대 육성(LCC장애, 외국어 선호 등)  
• 국내외 경제 저성장에 따른 소비력 감소  |

▶ (기회 활용) 국내외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품질제고
▶ (위기 극복) 관광수요 축소 노력 및 혁신성장을 통한 관광기업 생산성 증대

2. 목표 및 추진과제

관광혁신으로 일구는 경제 활력·삶의 활력

<table>
<thead>
<tr>
<th>추진 방향</th>
<th>비전</th>
</tr>
</thead>
<tbody>
<tr>
<td>지역개발 현장의 중추적인 관광지</td>
<td>1. 방한 및 국내관광 수요 확대</td>
</tr>
<tr>
<td>지역특성 굿볼의 전환</td>
<td>2.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td>
</tr>
<tr>
<td>문화자원 활용의 중심지</td>
<td>3.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td>
</tr>
<tr>
<td>산업혁신의 중심지</td>
<td>4.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td>
</tr>
<tr>
<td>기반 조성</td>
<td>5.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기대 효과</th>
<th>2018년</th>
<th>2022년</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국내외여행일수</td>
<td>13일</td>
<td>15일</td>
</tr>
<tr>
<td>방한 외국관광객 수</td>
<td>1,535만명</td>
<td>2,300만명</td>
</tr>
<tr>
<td>외국관광객 비중</td>
<td>49.6%</td>
<td>60%</td>
</tr>
<tr>
<td>관광산업 일자리 수</td>
<td>58만 명</td>
<td>96만 명</td>
</tr>
</tbody>
</table>

* 일자리는 방한외래객 및 1인당 국내외여행일수 증가에 따른 관광자산 증가(31.4조)로 산출
Ⅳ.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1. (수요확대) 방한 및 국내 관광수요 확대

◇ 신남방정책 연계 비자제도 완화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방한관광 수요 확대 및 연령별·계층별 여행지원을 통한 국내외여행 잠재 수요 발굴

1. 방한관광 수요 확대

□ 비자제도 완화 등 출입국 편의 제고 (법무부)

- (중국) 중국 부유층 개별관광 방문 증가를 위해 복수비자(5년) 대상 지역을 소독 상위 4개 도시에서 13개 도시로 확대(19.3. 상반기)
  - (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산시 → (후기) 부녀자, 신청, 산시, 상하이, 광저우, 낫보, 우한, 항저우, 청도
- (비자간소화제도) 중국 대학생 대상 비자 서류 간소화 제도 확보 강화
  - 중국 4년제 대학생이면 전자학력인증서만으로 비자발급 가능
- (동남아 3개국)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비자 신청 및 발급
  - 동남아 단체관광객 현황: (1)81,457명 → (1)6,436,232명 → (1)78,543,477명 → (1)8,360,158명
- (인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단체여행객 대상 단체비자 발급
  - 인도 인구(13억명) 중 약 5.2%(6.8천만 명)가 여권 보유, 비자연장 국가가 적어 비자 편의성이 해외여행 목적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비자완화 시 관광잠재력이 높음
- (수수료) 중국 및 동남아시아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연장(19.10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 기간 아세안 국가 단비자 수수료 면제(19.10~12)
- (비자신청센터) 비자발급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인도네시아, 호세만, 자카르타)에 비자신청센터(비자접수, 교부 대행) 신설(19.10)

□ 중국·일본· 중화권 시장 안정적 관리

- (중국) 최근 증가하는 2030개 개별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 추진
  - ◆ 한중 관광협력대회 포럼(19.3월), ◆ 제한 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 ◆ 찾아가는 방한관광 설명회(방한관광 관전자 콘텐츠 홍보, 소채야션 공연 등) 등
    - '17년 홍보시리즈 조사결과, 21~30세 입국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31.5%)이며, 1인 평균 지출액도 방한 중국인 중 타 연령 대비 제일 높음
- (일본) 다양한 방한 수요 창출 및 신한류 연계 상품 개발·홍보
  - ◆ 일본 지방 방한 관광 신규 수요 창출*, ◆ 청소년 방한 여행 홍보 (교육여행설명회 등), ◆ 신한류, 미식(美食) 콘텐츠 활용 대표 상품화
    - 한국문화관광대전(19.4월, 후쿠오카, 투어리즘 익스포 채권 2019.10.1, 오사카)
- (대만·홍콩) 인바운드 3위시장 공고화를 위한 핵심 방한계층 및 잠재 수요 맞춤형 상품 개발
  - ◆ 2040여성(한류, 소장, 촬영광고), ◆ 가족관광(단품, 스키 등 계절관광) ◆ 개별관광객(CCC항상가로 연계 상품), ◆ 고용률 기여(필리버니 상품 등)
    - '18년 방한 대만관광객 112만 명(20.5%)↑, 홍콩관광객 68만 명(3.9%)↑

□ 신남방정책 연계 아세안·인도 대상 특별 마케팅

- (주요계기홍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19.11월/한국) 계기 K-POP 콘서트 개최, 민간 한류 이벤트 연계 신남방국가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및 현지 대규모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 '19 신남방 홍보문화관광대전(인도 몰디브, 베트남 호제민, 필리핀 마닐라) ◆ MATTAA Fair(19.3월, 9월/추일로람푸르), NATAS Travel(19.8월/싱가포르) 등
- (특별환영대책) 방한만족도 향상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맞춤형 '환대 주간' 운영(19년 대만, 베트남 → 향후 아세안 국가)
  - 공항·입국장·도심·의료·관광지 현지어 홍보관광안내서비스 등
방한관광 해외광고 전략적 송출

○ (현지화 광고) 방한 관광 친밀도 높을 위해 현지인/현지어를 사용한 맞춤형 광고 신규 제작 및 송출 확대(19년, 중화권, 일본 → 20년, 신남방국가 등 확대)
○ (콘텐츠 제작) 중, 일, 신남방국가 등 국가별 선호 미디어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 콘텐츠(유튜브, SNS 등), TV프로그램(다큐, 여행, 미식 등) 제작・송출

2. 국민 국내여행 지원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 (청소년-청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청소년 ‘시작하는 여행자’ 및 청년의 신선한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상상하는 여행자’ 운영
  ●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행 준비서류 안전수칙 등을 알려주는 특강 개최(19년 시행)
  ● 대학생들의 국내여행 경험 제고를 위해 여행에 특화된 강의를 개최하고, 국내 여행 과정에서 발굴한 관광자 개인 아이디어로 발표화 공모전 추진(19년 시행)
○ (근로자)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국내 관광 지출 효과가 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18년 2만 명 → 20년 10만 명)
  ● 18년 사업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을 통해 예정에 없던 여행을 달성 비율(54%),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계획을 변경한 비율(36.5%)
○ (고령자) 고령자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짧은 여행자’ 지원
  ● 고령자들이 스스로 여행계획을 세우고, 나alus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여행의 준비방법, 기록방법, 정보검색방법 등을 알려주고 실천여행비용 지원
  ● 80세 이상 여행(10→17년): 횟수(3.1→5.8배), 일수(6.4→10.3배), 지출액(26→65만 원)
○ 소외계층 기초 사회계층의 국내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누리카드 지원금 증액(복권금) 및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증액(‘19년 8만 원 → ‘20년 9만 원 → ‘21년~ ’) 10만 원
  ● 장애인 고령자・영유아가족 등을 위한 장애를 막는 관광지(‘22년 100개소, 누적

<2019 국내여행 트렌드 전망>

<table>
<thead>
<tr>
<th>2019 국내여행 트렌드 전망</th>
</tr>
</thead>
<tbody>
<tr>
<td>B</td>
</tr>
<tr>
<td>R</td>
</tr>
<tr>
<td>I</td>
</tr>
<tr>
<td>D</td>
</tr>
<tr>
<td>G</td>
</tr>
<tr>
<td>E</td>
</tr>
</tbody>
</table>

- 베이비붐 세대부터 일대일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여행
- 축제, 행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는 여행
- 유튜브 등 영상에서 본 곳으로 나가고,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여행
- 맛집, 카페 등 마치사적 시각을 만끽하는 여행
- 근교여행 등 특별하지 않은 날에 일상처럼 휴식을 즐기는 여행
- 평창 동계올림픽 특성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도에서 즐기는 여행

- 9 -

- 10 -
2. (지역혁신)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대형과 지역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역 고유의 특화 자원 발굴 및 지역 마스터 인프라 집중 지원으로 지역 관광 성공 모델 창출

1.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 국제관광도시

- 서울, 제주 외 글로벌 접점성 및 관광 인프라 등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관광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1곳)
- 글로벌 관광의 새로운 목표지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전략적·집중적 홍보·마케팅 및 도시 브랜드 관리 지원
  -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예능, 공연), SNS, 국제여행박람회, 스타 홍보대사 등 온 오프 라인 홍보 집중 추진, 개인관광객 대상 홍보 및 여행상품 판매 유동 지원

□ 관광거점도시

-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여 인프라·콘텐츠·마케팅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향부로 육성(4개 기초지자체)
  - ▶ 전통적인 지역 중심성 및 주변 연계·파급력, ▶ 광역 교통접근성, ▶ 관광 매력성 ▶ 기존의 관광 수용대체를 보유한 기초지자체 선정, 범부처 협업 지원

□ 관광거점도시

-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관광·문화예술·도시개발·교통·ICT 분야 현장전문가 중심 「(가칭)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글로벌 관광도시 및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협업과제 발굴·지원 기구 역할
- 도시 선정, 계획 수립 등 주요 단계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지원 사업 연계 및 혁신 규제 개선, 부처협의 지원
- (DMO) 지역의 특성을 맞게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할 '한국형 DMO' 구성, 관광거점 도시 등 해당 지역의 관광 확대를 실질적으로 전개

*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 지역 관광에 연계된 자치체 및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지 경영 등 추진하는 중간조직
- DMO를 통해 ▶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 환경 미화·정소, ▶ 뮤직 뮤직 등 수용대체 개선, ▶ 서비스 향상·바스터 근절 캠페인, ▶ 주민·사업체 대상 관광 인식 교육 등 추진
지역 체험 ·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충 (농식품부·해수부·문화부)

- (체류형 농어촌관광) 지역 내 관광자원(음식·숙박·농어업 체험 등)을 활용하여 향토음식을 반영한 체류형 농어촌여행 프로그램 개발
  - 전남 강진 : 영양감성학교·한국인화박물관·고려청자박물관·농가숙박체험 등
  - 경북 고령 : 농촌체험마을·탈네마받상·업진참가·대나무문자판 만들기·농가숙박체험 등

-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관광협의체(마음경영체· 지역활동가 등)를 구성, 농촌여행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하도록 지원(6개소)
  - 강원 황해 : 달빛이 페스티벌, 달빛이 테마트, 아르마켓, 튀드스토리 다이닝 등
  - 전북 김제 : 마당극·농업축제·축제·마을축제, 마을꽃자바, 풍물나라 등
  - 전남 광주 : 마을축제, 토란마을축제, 떡볶이들고 고타기축제 등

-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관광자원(관광명소, 축제 등) 연계, 어촌으로 떠나는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10개소)
  - 경북 문경 : 해양공예체험, 테마트, 형제와 함께한 산림체험(195평)
  - 경북 울릉 : 동서(성사), 신사(서산), 수산(양양), 방주(안성), 대야(대안), 중리(서산), 신사(군산), 석두(합정), 서정(강진), 이어(남해)

- (생활관광 확대) 지역에 장기간 체류(한달살기 등)하며 현지인과 교류하는 체류형 생활관광상품 및 일상의 근접한 소재(농정서점, 3대맛집 등)를 스토리로 읽은 이야기 생활여행 콘텐츠 발굴

-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 골목여행 프로그램 개발, 일상여행 스토리 공모전 개최
  - 현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쿠킹클래스, 현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아트스쿨, 지역축제와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3. 지역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 스마트 교통 (국토부-문제부)
  - (국민형 MaaS) 관광객 관점에서 최적 이동 경로 도출, 다양한 교통수단(버스, 철도, 항공 등) 스케줄 조회, 예약·결제 원스톱 지원
    - 19.8월 여름 서울 시내 셰이어, 엽같이 최적화된 후 주요 길 루트, 주요 교통 수단 스마트 트래픽 추계
    - MaaS(Mobility as a Service) 전(통) 교통수단이 통합된 단일 플랫폼을 이용해 개별 이용자 수요(needs) 기반 이동계획 수립, 이용, 결제 지원 서비스

- 대중교통 편의제공 코리아투어카드* 보급 확대 및 시외·고속버스 예약·결제 시, 해외카드 사용 확대, 간편결제 도입 추진 등(19. 상)
  - 전국 2대여객 관광지/숙박소방 등 휴대폰을 제공하는 관광객 교통카드

- 다국어 서비스 대중교통 외국어 노선도, 출자차지 안내시스템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 시각,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평가에 다국어 서비스 반영

- 스마트 쇼핑·안내 (중기부-문제부·과학부)
  - (결제 편의) 외래객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케알페이 체류 추진 점검 (중기부)
  - (쇼핑 편의) (개봉)쇼핑권사여 인터넷 서비스(환율계산, 할인쿠폰, 환급정보 등 쇼핑정보 제공) 및 휴스프리 서비스(검보판·배송) 확충
  - (온라인 관광안내) 실시간 문자 채팅(챗봇)을 통해 관광객 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상품정보 제공하는 관광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VKunMe, 19년)
  - (무한 관광정보)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주변 관광정보, 관광안내,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컬럼드라이’ 확충
    - 전국을 보유하고 있는 음성, 편의점, 호텔 등을 상세 시설 내 관광정보제공, 분석, 예약서비스 등 다국어 지원(19년 2개소)
  - (아이디어 서비스) 전국 주요 교통접점, 관광지, 공공시설, 전국시내 버스 등에 공공 아이디어 설치 확대 및 통합시스템 구축(19~)
    - 교통접점 공공 Wi-Fi는 한국·일본공항, 코레일·SR, 한국도로교통공사 등과 협업

3. 콘텐츠혁신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1. 한류·이스포츠·공연관광

- 한류 대표상품인 K-pop 관광 확대
  - (관광상품화) K-pop 대표상품(콘서트, 캐릭터, 금융/보험 등) 개발 및 K-pop 콘서트, 체험-숙박·교통' 가짜 상품 개발로 한류관광 확대
    - (예) 드림콘서트, 부산현아이페스티벌, 인천창의광산검정, 영남페스티벌 등
  - (페스티벌 개최) K-pop 콘서트 연 2회 상설화(19.10월) K-pop 월드 콘서트 개최, 강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주요기획 활용 K-pop 콘서트 개최 지원
    - 세계 각 지역여행을 가진 팀을 국내로 초청하는 K-pop행사(19.5~10월 중)
  - (인프라) K-pop 관련이 상시 가능하도록 중대형 K-pop 공연장 건립 (서울 창동 '20~24, 인천 경주도 '19~22년) 및 수도권 외 지역 연계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중음악 공연장 확충

- e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신수요 창출
  - (인프라) e스포츠 상설기행장 신설(20년 3개소, '22년까지 5개소) 및 경기장 주변시설 복합문화 콘텐츠 시설화(pub스터, e스포츠 스타디움센터)
    - (경기대회) ▲ 지역별 상설 e스포츠 리그 운영 ▲ 프로게이머 지역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활용화(한국대회 신설 세계 e스포츠 대회 등)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 (관광상품개발) ▲ 외국구단에 국내 전·지역 운동관련 공간제공(현수 stanza가, 관광) ▲ 'e스포츠 콘서트' 개최 ▲ 프로게이머 코스프레 및 교육의 장단(상설) 연계 관광(주) e스포츠 투어(19.5월) ▲ 지역 행사 등 연계한 e스포츠 경기 관람, 콘서트 등 관광 상품 개발 등
    - 예) 전에어 e스포츠선 업 팀과 함께 하는 충남 3일 프로그램: 충남관광청 주관으로 e스포츠&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하는 컨설팅을 개발하여 전 세계 110명 선수 참여
△ 코리아 브로드웨이 조성
- (대학로 공연거점화)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연계 거리공연 확대 (연 3회), 공연공간 마련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연안내 제공 등
- 해외역 공연 테마역사화 추진 (문서-서울시)
  * 일본은 매주말 차량통행금지를 통해 도로 감가저감을 당사하여 관광활성화 성과
- (연중 공연 테마별 개최) 대학로 예술축제* 상시 개최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점점 대학로'매년 10월'을 아시아 대표 공연축제로 브랜드화 지역 주요 상설공연** 대학로 공연장소 제공 등
  - (현) 서울은행국제, 국제현대우공장페스티벌 등 (가을) 서울문화공연예술재, 서울 아트마켓, 대학로 소극장 축제 등
  * 부산(하이비의 전시), 인동(하이머크 자아조선),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등

[블렌디sdale 외한방안]
- 유명 한류스타-유지철 배우 홍보대사 선발
- 10월 한달동안 차 없는 거리에서 주요공연 파티와드 및 쇼케이스 추진
- 축제기간 중 대학로 공연장 주요지점에 외국아웃네이트 배치하고, 공연준주 스태프가 직접 안내카드로 참여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

△ 한류스타 연계 관광상품 개발
- (관광상품화) BTS 등 한류스타와 관계있는 뮤직비디오·멤버스켓·映화 ,영화 채팅 및 식당·카페 등 관광코스 개발 및 연계상품화
  * 뮤직비디오 이미지 이용 하락 개막장치 관련 신설, 관광 주요거점 안내판포토존 설치
  * 참고 : BTS 코스, '방탄소년단' 관련 지역 채팅

- (상품정보제공) 현지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한류 테마관광상품 판매, 온.오프라인 매체(트위터, 웹사이트) 활용 한류 관광 목적지 제공**
  * Klook(홍콩), KDay(대만), 친하온(중국), 코니스트(일본) 등
  * FIT 전용 홍보사이트(VK for me)를 통해 한류 관광상품 홍보 및 예약링크 서비스 제공

2. DMZ 평화관광
- (평화의 길 10선) 국민들이 직접 DMZ 걷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민통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 감시조소(GP)를 잇는 평화의 길 조성
- (19년 1월) 서울구-동북 3개 신별코스 운영 (문서-평안북-군중부,동일부)
  * DMZ 인근 강화·고성(43km) 거점센터 설치 등 '통일을 여는길'(평안부)과 코리아 doe길(DMZ 탐방길,문서-동북,노선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통합 조성·운영
- (평화관광열차) DMZ 내로 운영하는 평화관광 테마열차(DMZ train)
  경의선(서울-도라산역) 시범사업 (19년 1월) 추진 (문서-코레일)
  *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DMZ train 경의선(용산-도라산역)의 열차 내 콘텐츠 (해설 등) 확충·개선 및 도라산역 하차 후 관광지 방문프로그램 개선 등
- (관문점 관광객) 관문점 출입비orough 환경을 통해 정상화 담당소 현의 집, 도보거리 등의 관광코스식* (문서-문부문,도부문 등)
  * 자유의집-군사청전의관(대구·와누리도보거리) → 자유의집-군사청전의관(대구-와누리도보거리, 공동 식당 소나무(남북정상 담화) : 국방부,유엔사 협의 추진
-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공연·국제행사 등 상시 개최, 예술가 글을 크리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문화예술행사 개최
  * (문화행사) DMZ 피스테레인 무직 페스티벌(19.6), DMZ 국제다큐 영화제(19.11), 국제문화적막해설(19.12)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 (예술공연) DMZ 감시조소(GP) 철거 전과를 활용 예술프로그램(19.3.21-5.6, 문화예산28회) 및 DMZ 주제 예술품 제작·설치(19.3월, 평화의 집)
- (평화관광 안내) 평화관광 관점의 안내자료 발간·배포 및 '평화 관광 해설사' 양성(20년)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평화관광 관점에서 자료 수록 가이드라인 등 제시(19.9)
  * 전문의 비극을 알리고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19.9)
○ (기억의 박물관 조성) 전쟁과 분단의 비극적인 역사를 추도하고 한반도 범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억의 박물관' 조성 검토

○ (환경·사진 보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DMZ 남방한계선 남쪽 일부, '18.9) 및 동해안 보존 감시초소(GP)의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
  - 강원도 5개 군(철원·원형·양구·인제·고성) DMZ 접경지역 및 인천군 전체(2,412㎢)

□ DMZ 관광자원 및 인프라 확충

○ (관광인프라 개선) 접경지역 조지역 개발센터 설치(게스트하우스, 카페 등), 교통망,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 수용 인프라 개선

>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11년~30년, 행안부 수립, 132조원)에 따라 행안부·국토부·문체부·산림청 등 8개 부처가 108개 사업을 통해 3조원 투자

○ (DMZ 관광거점 육성) 서부권(인천, 광주 동, 중부권(천안 동), 동부권(고성 동) 등 관광별 특성을 살린 전략적 DMZ 관광거점을 육성

<table>
<thead>
<tr>
<th>권역</th>
<th>특성</th>
<th>예시 사업</th>
</tr>
</thead>
<tbody>
<tr>
<td>서부권(인천 광주 동)</td>
<td>수도권에 인접, 판문점 등 근해대 역사지역과 다수 보유</td>
<td>• 예기봉 편리시설공원(경포) • 생태문화 관광지역수리·예비대(마산) • 임진강 평화공원(경포)</td>
</tr>
<tr>
<td>중부권(천안 동)</td>
<td>고려 등 역사문화지역 다수, 편지로 잇는 가교 역할</td>
<td>• 근대문화지역·대게공원(천안) • 소양호 복원체험마을(인제)</td>
</tr>
<tr>
<td>동부권(고성 동)</td>
<td>자연환경 보존 상태 우수, 남북을 잇는 거점</td>
<td>내수산 일물일대공원, 해수관련 복지창, 등생태관광 특성</td>
</tr>
</tbody>
</table>

○ (군 유류시설 관광자원화) 철수 예정인 감시초소(GP), 군 막사 등을 활용한 숙박·체험시설 조성(리모델링), 체험물 등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등(19.~) (문체부·군방부 등)

○ (관광자원 조사 스토리텔) DMZ 내 유·무형 관광자원 및 스토리 조사·정리, 'DMZ 스토리텔' 제작하여 2차창작물 등 활용 제공

○ (민주시제) DMZ 포함(현장문案)을 통한 정책수요 발굴,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문체부·13개 접경지역 지자체)를 통한 정책조율·협조체계 구축

3. 해양레저 관광

□ 해양관광 권역별 특성화 (해수부)

○ (해양레저관광 경계) 해양레저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재생관역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경계(30km)로 개발
  - 수도권(도시형 마린, 서해안권해양레저, 동해안권해양레저), 제주도(수중레저 등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해양레저 창업자원 기능이 종합된 복합시설

- 해양체험·교육, 창업지원 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기존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특화
  - 군산 마린하임, 강원 고성 제주 수중레저 항주 조성(19. 실시설계 배치 10약자)

- 중앙정부는 주요 기반시설 확충, 조지는 추가 면허 개발 및 자원 연계, 민간은 리조트 등 숙박·편의 시설 조성 담당

○ (해양체험 거점) 우수한 해양체험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와 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사계절 해양관광 거점 조성
  - 해수·해양따라, 해양경관 등 스포츠 및 민간자유 문화를 돕는 해양자원
  - 해양체험자원 문포 조사 및 효능 검증, 해양체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화 지원

○ (K-Ocean Route) 해양레저관광 경계 이촌뉴딜 사업지, 거점 마린, 해양체험 시설 등 주요관광자원과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다길 개발
  - 1단계 조성지(122km) : 울진 후포, 창원 임해항, 안산 방아머리, 여수 용천
  - 반나절 이동 거리(30km 내외)마다 체류시설이 위치하도록 코스를 설계하고 동선을 따라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여행 상품 개발 지원
  - 거점형 마린하임 →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 이촌마린하임 → 여수오션 프레지엄 → 조선리조트 → 여수뉴딜300 사업지
다양한 관계(국내 항공 및 크루즈)를 통해 다변화된 관광 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황로의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항 운영 확대
- 항공 관광 취약지로 이동하여 기항지 인근 관광 후 크루즈를 탑승하는 관광객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 일본과 러시아 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다양한 황로의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항 운영 확대
- 항공 관광 취약지로 이동하여 기항지 인근 관광 후 크루즈를 탑승하는 관광객

1. 크루즈 관광 활성화 (해수부, 문체부)

- (크루즈관광 다변화) 일본, 대만 및 유럽 주요시장인 동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방한 크루즈 유치 확대
  - 동유 크루즈 관광객은 17년 220만명으로 유럽 시장의 30% 차지로 지속 성장
  - 대만, 호주 등 크루즈 송출국이 많은 국가 대상 'Ely & Cruise'
  - 상품 활용 및 5대 기항지별 체험상품 개발
  - 항공으로 크루즈 출항지로 이동하여 기항지 인근 관광 후 크루즈를 탑승하는 관광객

-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 일본과 러시아 뿐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다양한 항로의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도록 국내 모항 운영 확대
  - 항공 관광 (18년) 19항차 (19년) 22항차 (20년) 30항차 이상
  - 연안 및 섬을 여건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안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2. 섬 관광 활성화 추진 (문체부·행정부·국토부·해수부)

- (섬에 가는 섬) 전라남도 인천항 개설, 춘구항·바다로 등 운항 지원, 마리아 이용 등 이동수단 다양화로 섬 접근성 개선
  - 도서 항로운행·갈소백지 지원(춘구항, 창녕항), 항로 응용 유효 이용(바다로)

- (불거리·금거리) 선별 데마 선정 및 기초시설 조성 지원, 특화 관광 상품 개발, 유무지역 섬 연계 등 추진
  - 섬을 유치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시설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 관광 인프라를 갖춘 거점과 주변 유무지역 연결하는 관광코스 개발

- (미식·휴식) 섬 특화 수산물 홍보, 유무지역 활용 지원사이트 등 조성
  - 섬 수산물 활용한 요리 개발, 식재료 제조·조리·판매 등 콘텐츠화

- (홍보·마케팅) 제1회 섬의 날(1988)' 기념 행사 추진 및 섬 관광 관련 종합정보 제공, 섬 관광 활성화 계획 마련(19년)

- (협업체제) 공동 시범사업 발굴 및 섬 관광 정책공유(문체·행정·국토·해수)

4. 문화유산 관광 (문화재청·문체부)

- (세계문화유산의 관광지원화)

- (조선왕릉 통합 관광)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개최(19.6월) 및 관광 콘텐츠 및 테마 관광이 가능한 조선왕릉 통합 관광 조성 추진
  - 조선왕릉 조성 인프라 설계 연구(19년) → 관광코스 및 콘텐츠 프로그램 마련(20~24)

- (공원 활용 확대) 대표 문화유산 관계인 '궁중문화축구' 관내 개방 (4대궁+경복궁)
  - 궁전 전자 특별 개방 및 창경궁 야간관람 상시화
  - 경복궁 경건전 및 장고 시범 개방(19.10월, 창경궁), 창덕궁 최정당 및 창경궁 경건전 내부 개방(4~5월, 9~10월, 창경궁), 양주 읍영 공개(19.10월)

- (세계문화유산 관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기록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세계유산 관광기회 확대
  - 예) 밖세대사유지구 '다니자 백제속으로 pago pago', (남양산성) '남원산성·내성 동양의 보감' 신청을 전문 학자 크루즈 관광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 문화유산 특별 방문코스 및 문화재 특별 개방 확대, 남북연계 문화유산 다 큐레이팅 전 추진

- (도시문화유산 관광지원화 및 콘텐츠 활용 확대)

- (근대문화유산공간)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확립 및 보존 활용을 통해 교육·체험 등의 특화 공간 조성(19년 포포 영주 군산 3개소 시범사업)
  - 문화재 보존상식, 역사경관 회복, 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 콘텐츠 개발 등

- (문화재 아카데미)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 활용, 문화재 아카데미 개방,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문화재 아카데미' 확대
  - (17년) 18개소/관람객 204만명 (22년) 30개소/관람객 247만명

- (서원·함영 프로그램) '도문·예비 서원·예비 서원·예비 서원' 등 함영서원 예비문화제 및 서원 활용 유교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템플스테이 확대) 외국인 전문 텔름스테이 확대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절 외국인 주간 운영, 지역문화자원과 텔름스테이 연계 코스 발굴
○ (고객활용) 방치·혜손되고 있는 고객(인순문화재) 메일, 마을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 제례 등 고객 활용프로그램 발굴·운영
  ・(19년) 아산 은암마을 건체 고객, 정음 김영관 고객 등 2건
○ (현장체험) 민속마을·종가 등에서 전통문화 체험 확대
  ・(은암마을) 음식(유과·예) 체험, 절필문화재 / (학원마을) 유교생활·국악·종가 음식·전통생활 체험 / (성암마을) 체험가족 운영 / (황곡마을) 방앗간 운영

5. 의료 관광

(복지부·문체부)

□ 권역별 맞춤형 품질·마케팅 확대
○ (신남방) 한국 의료 хр니스 관광대전('17, 인도네시아) 개최, 은행VIP 고객 등 현지 무어시장, 고소득층 초청 및 별도 상담 추진
  - 현지 거점(베트남) 구축으로 중증질환, 한노호 등 다양한 해외의료수요 선점
  - 한국의료협력기점센터 개소('17.11), 한국의 중증 치료성 병원 및 병원 현지 지원
○ (중동) 중증질환 분야 국비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인 간 학술, 기술 교류 등 협력 강화를 통한 의료관광객 송출 채널 확보
  - UAE, 쿠웨이트 국비환자 증가 (13351명→15630명→17858명→18981명)
  -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 2019(11월) 및 한-사우디 헬스케어 포럼(19.9월) 등
○ (중국) 직접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유리 현지 예약식 패루어 및 국내 의료관광업계(의료기관, 의료재계 등)와 네트워크 강화
  - 중한 건강산업국제교류센터(상하이)를 통해 유치업계 현지 활동 기반 지원

□ 신규시장 창출
○ (시장창출) 현지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발굴을 통한 고소득 의료관광객 국내 송출 확대, 의료관광- хр니스관광 결합 상품(미용→스파, 검진→한방 채널 등) 개발 등 연계강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 (예) JK성형외과 : 성형수술과 스파, 피부관리, 빗기관리, 두피케어 등을 함께 제공
  - (수요전환) 의료목적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동반자 대상 관광 프로그램 전국시행, 의료관광안내센터 안내기능 강화를 통한 일반 관광객을 의료관광객으로 전환
  - 18년, 수도권 중심 4개 프로그램 → 19년, 전국 대상 10개 프로그램
  - 방문 의료관광객의 38%는 당초 의료 목적으로 방문(2018 의료관광 만족도조사)
○ (외국의료인 연수) 외국 의료인 연수생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연수대상 및 연수 국가 다변화
  - 외국 의료인연수 현장지로 수집 및 연수 DB구축 운영(의료외국인연수, 개방, '18.12월)
  - 건강증 증가, 기관 사무처 등에 의해 중국, CIS 및 아시아국가(신남방) 확대

□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지역의료관광 유속
○ (협업체계 강화) 문체부-복지부 간 의료관광협의체 운영(반기별)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품질·마케팅 분야, 협업체계 지속 발굴
  - (인천공항 의료관광센터) 의료관광 안내 및 의료이용 편의 지원 등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2018.12, 관광공사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운영)
  - (웹사이트 활용도 제고) 통합 의료관광 웹사이트(관광공사) 한국 의료상품안내사이트(보건산업진흥원) 일원화, 주요 고객운영(구글, 엄마, 바이두) 키워드 마케팅 등 적극적 품질 추진
○ (지역확산)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우수한 의료 хр니스 시설 및 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유속
  - (의료관광)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19년 대구 등 4개, 문체부), 지역 특화 의료기술 전달(19년 8개, 복지부)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 관광상품화 및 품질·마케팅 연계·산업 동반성, 지역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지원
  - ( хр니스관광) хр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18년 경남 1개→19년 1개) 신규추가, 문체부)을 통한 지역 хр니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문화·관광 발굴 개발, 관광상품화 및 품질·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협업체계 구축 등 지원
4 (산업혁신)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경제 활성제고를 위해 관광기업 창업, 민간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제조업 수준의 금융지원, 성장단계별 지원 등 성장기의 관광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1.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 [창업] 관광스타트업 발굴

- 유복합 관광기업 창업 활성화(22년 1,000개), 에비창업-창업조기(+3년)-창업도약(3-7년)-제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및 사업화 자금 확대(기업당 최대 5천만원)로 관광 벤처 캐리적 강화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방향</th>
</tr>
</thead>
<tbody>
<tr>
<td>에비창업(창업단계)</td>
<td>창업(인큐베이팅): 상품서비스 개발비</td>
</tr>
<tr>
<td>창업조기(스타트업):</td>
<td>창업(인큐베이팅): 상품서비스 출시, BM 수립</td>
</tr>
<tr>
<td>관광벤처: 3-7년</td>
<td>성장(액셀러레이팅): 중소기업, 판로개척지원</td>
</tr>
<tr>
<td>선도벤처: 7년 이상</td>
<td>성장(액셀러레이팅): 민간투자유치지원, 해외진출지원</td>
</tr>
<tr>
<td>상생협력: 협회, RTO 등 추천</td>
<td>창업(바텍트워크): 컨설팅, 특허교육지원</td>
</tr>
<tr>
<td>재도전</td>
<td>창업(인큐베이팅): 상품서비스 개발비 지원</td>
</tr>
</tbody>
</table>

-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관광 청년 에비창업자를 위해 ‘에비 창업패키지사업’ 지원분야에 ‘관광특화’ 신설 (기후)
  - 에비창업자의 창업사업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창업·영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관광창업 활성화 지원
  - 경영전문가 양성, 법인설립, 노무회계 등 특화교육, 실전 창업과정·시장점검, 현장실습, 편집프로그램, 고객дов응조사 등 창업설계

- 전문가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Star-up’ 에 관광분야도 참가 (기후부주관, 부처협동) 분야별 예선 개최 후 결선은 통합 개최 및 TV 중계 추진
  - 현 문화演艺 예선(학생리그, 국방리그 등)에 관광리그(관광벤처 공동모집) 추가 운영

■ [Scale-up]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

- 해외 OTA(온라인여행중개)의 가르침 이미 제조업 수준을 상회
  - 에어비앤비 353조 3화머니디자 22조, 부킹돌링 931조(부정과정 아고다, 호텔스달리 등)

- 경제활동재고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기업가치 12억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적극적 육성 필요
  - 에 (아놀리니)는 슈박중개+프랜차이즈 슈박시설+슈박연구소+연구교육회+미디어 등으로 다각화 과정을 거쳐 19년 관광 최초 유니콘 기업 등록(창업후 유니콘기업까지 14년 소요)
  - 현 국내 유니콘기업 총 7개 (아놀리니, 쿠팡, 우리한방재단, 크래프트, 바비파파리카, L&P코스 메디, 올로포마)로 중국 9개, 미국 16개여 비해 소규모(1933)

- 민간 액셀러레이터* 활용, 선발부터 보육, 육성, 투자유치까지 민간 주도형 성장 지원(정부 지원금의 30% 이상 민간투자 의무화)(20년)
  - (정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영업투자, 사업공간, 편집등 정점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기관

- 잠재력을 갖춘 우수 관광기업을 선정, 해외 진출 및 사업다각화, 홍보 마케팅 등 집중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지원(20년)

- 관광벤처 및 관광분야 다양한 업종(세부업종 34개) 중에서 생산성·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전략업종(예천무향업, 등) 지정·집중 관리

- 글로벌 진출, 사업다각화, R&D, 기업 M&A 등

- (대혁) 13년 3명의 직원으로 창업했으나, 정부지원(17년 관광벤처 공모) 민간투자(520억), 기업인수(183억) 이중화, 안수위 4억원을 통해 지속 성장하여 해외로의 성장

- 관광벤처 개별기업 지원에서 나아가 기업 간 융·복합 사업소재 등을 개발하는 ‘관광프로젝트’ 지원금·시장개척(19년 4개 프로젝트)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결합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 결합</td>
<td>- 인접 지역 관광 상품 간 결합: 공동개발</td>
</tr>
<tr>
<td>시설 &amp; 서비스 결합</td>
<td>- 체험 상품과 숙박(식사, 요트, 시골 민박 등) 결합</td>
</tr>
</tbody>
</table>

| 기술 & 서비스 결합    | - 지역 체험상품과 IT 기술 협업 |
| 심층기술결합          | - 종합물품과 체험 프로그램 결합 |

| 기술 결합              | - 플랫폼 및 특정 기술 결합 |

- 25 -
2. 산업성장 기반 마련 : 금융 + 기술 + 인력 + 인프라

□ (금융) 제조업 수준의 금융지원 확대

• 관광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자금지원(39.4%), 수요확대(19.3%), 인력지원(11.5%)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광벤처는 자금지원(65%), 인력지원(10%), 수요확대지원(8%)이 2018, 2019년도(4,000만원) 250개 조사 결과, 문광연

•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업체가 신용보증을 통해 관광기금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19년 600개 업계 지원)
  - 보증협약 체결(문체부-중기부) 및 출연(30억원)을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50만원씩 지원할 경우 600개 업계 대상 응용 가능)

• 시설, 운용자금 위주 응용에서 산업자금 등 프로젝트 단위* 응용 기여 및 소규모 관광업체 응용조건 개선* (20년~)
  - 개발 프로젝트의 범위 - 국제회의 개최자금, 우수 관광기업금, 관광벤처사업, 관광 R&D, 여행사 협성기 프로젝트 등
  - 금리 차등 적용, 은자금 상환방식의 단기적 운영, 금융 수익 대비 지원 금액 확대

•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19~22년까지 최대 2,000억원 조성), 크라우드 펀딩 지원 확대(19년 75개~22년 100개)
  - 관광 및 관광언론산업(특수분야 기업투자 62% 이상, 벤처 등 기업투자 20% 의무화)
  - 관광기업의 성장 축진을 위해 스퀘어펀드(항후 4년간 12조원 규모) 운용과 IR, 투자상담회 개최 등 투자기회 확산(문체부-중기부-금융위)

• 산업, 기업, 신도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서비스산업* 마중물 자금공급(5년간 최대 60조원) 추진 (금융위-문체부)
  - 관광 등 4대 유통서비스산업, 혁신금융 추진방향(19.3.21, 발표)과 연계 추진

□ (기술) 관광산업 R&D 적용 확대

• 중기부 TIPs 지원기업 중 관광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개발 신중uration 지원(30년)
  - TIPS 기술 중 관광플랫폼(개발) 기술은 관광 사업에 적합 추천(중기부) 관광산업 모델 확장 위한 응용기술 개발 및 관광개혁 촉진(체육부)

• 서비스 및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의무에서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연계 기술 연구개발까지 관광 R&D 범위 확대(19년 7개 관계)

• 레저산업을 서비스R&D의 전략적 지원분야로 지정하여 서비스 혁신 및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중점지원 (중기부)
  - 레저산업에 전문기술자, 디자인 및 디지털이미지 기술 5대 전략분야를 중심지정(19년 2억원)

□ [인력]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 취업단계별 관광분야 인력양성 정책

• 관광공사, 관광산업과, 관광특화대학, 관광사(디자인, 마케팅, 오픈.Comp, 진로 및 생활, 체육, 문화행사, 바이오 등) 등

• 취업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전환 전반과학교육 전문인력 양성
  - (학생) 특성화고교생 도입(20%~50%), 지역대학생 대상 관광나라 오픈캠퍼스 운영(관광공사-강원도 15개대학 협업), 관광교육 취업포럼 개최
  - (취업생) 관광업자센터 확대운영을 통해 구직자, 기업간 연결교류 형성, 산학협력, 전문교육, 면접은 등 종합협력개발지원
  - 일자리박람회(19.11.12~13, aT센터, 120개 기업), 구직자 5천명 참여
- (신중년) 퇴직한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직무과정(예: 호텔리어) 신설, 취업연계 지원

○ (취업후)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실무역량 향상, 전문성 제고 위해 종사자 교육 추진
  - 관광안내사(30명), 숙박중사자(호텔, 콘도미니엄, 300명), 카지노중사자(70명), 국립어항 인술자·관광통력안내사(2,000명) 등 다양한 분야 직무교육 시행('19년)

○ (중장기적 관광인력양성 체계 개편) 4차산업혁명 대비 에비언리 육성, 직업훈련 확대, 신규직종 육성 및 교육기관 양성 추진
  -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반려동물동반 여행코디네이터, 전통시장 헤들리, 관광 스토리텔링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군 탄생

우수호텔아카데미 사업을 거점별 대표 호텔인력 교육기관 양성, 인증제 도입사업으로 전환
  - (현행) 기관 신설 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 이후 별도 교육 품질관리 등 부재 → (개선) 기관 신설 후 3년간 지원, 이후에도 인증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유원시설 전문인력 교육기관(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부합) 설립, 유원시설 개학과 운영(기업과 대학 MOU 체결) 등 산학협력 강화
  - 미국 노스리지 주립대학은 디즈니랜드와 연계하여 유원시설 전문학과 개설
  - 유원시설 경험마케팅, 유기기구 연구, 개발과정, 인재관리 과정 세부과정 개설

- [인프라] 관광기업지원기반 조성
  -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입주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기업 에로사항 해소(‘19년 서울 1곳, 지역 1곳 계획예정)
  - 창업 성장과정에서의 에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특화 종합컨설팅 지원
  - 밴처포저, 투자설명회(IK) 등 산·학·관 간, 기업 간 소통·교류의 장 마련
  - 관광시장에 특화된 창업·자금조달·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원스톱 컨설팅
  - 성장단계별(초기성장-성장) 관광기업 지원, 기업 금융지원·투자활성화, 응봉합 관광산업 발굴·육성 등 기업직접 지원기능 확충(20년~)

<참고 : 관광기업 성장 사다리 제도>

<table>
<thead>
<tr>
<th>금융</th>
<th>애로사항</th>
<th>정책금융기관</th>
<th>관광기업육성펀드</th>
</tr>
</thead>
<tbody>
<tr>
<td>크라우드 펀딩</td>
<td>옵지</td>
<td>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td>
<td>관광기업 육성([^1])</td>
</tr>
<tr>
<td>신용보증 은的实际</td>
<td>옵지</td>
<td>관광기업 육성([^2])</td>
<td>관광기업 육성([^3])</td>
</tr>
<tr>
<td></td>
<td>옵지</td>
<td></td>
<td></td>
</tr>
<tr>
<td>리에</td>
<td>애로사항</td>
<td>정책금융기관</td>
<td>관광기업육성펀드</td>
</tr>
<tr>
<td>금융</td>
<td>애로사항</td>
<td>정책금융기관</td>
<td>관광기업육성펀드</td>
</tr>
<tr>
<td>금융</td>
<td>애로사항</td>
<td>정책금융기관</td>
<td>관광기업육성펀드</td>
</tr>
<tr>
<td>조직</td>
<td>애로사항</td>
<td>정책금융기관</td>
<td>관광기업육성펀드</td>
</tr>
</tbody>
</table>
5. [혁신기반]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광사업체 7대 업종* 지원 위주에서 관광산업 전반의 진흥체계로 개편하고,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정관광생태계 조성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아이유적업, 유관시설업, 카지노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1. 관광산업법·제도 개선

[□] 산업 지원범위 확대

- '사업' 중심의 진흥체계를 '산업' 중심의 진흥체계로 전환하고 '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

| 관광산업의 범위 | 국제적으로 관광산업은 <주요 산출물이 관광의 특성을 미치는 산업활동 (93SNA-국제기구 공동 기준)>, <주요 산출물이 관광 특성활동인 모든 사업체의 산업활동 (TSN 기준) 등으로 정의, 즉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든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본 |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분야별·기능별로 관광 법률 체계화(관광증 진 기본법, 관광사업법, 관광객아이유적법, 관광편의시설법)

- 업종별한 중 사생활이 높은 업종과 지원 제외하고, 숙박·음식업 등 전문 허용(1991년, 창업지원법령 개정) (중기부)
  - (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박장 운영업, 컨벤션 및 수가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정 후 제외업종) 무도장 운영업, 공연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신산업 신설

-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관광연관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1991년)
- (관광산업외) 외국인 개방관광객 증가에 따라 1일이내 소규모 통역 및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신규 여행업(개정 '관광산업외') 신설(1991년)
- (국제회의 일반시설업) 전문 컨벤션 외 호텔·콘도 등 전문회의시설에 준하는 시설까지 포괄하는 '국제회의 일반시설업' 신설(2021년)

- 기업·자치체 애로해소

- 지역 관광 활성화 규제 발굴 및 개선 (관계부처 협동)
  - '18년 80건 발굴 부처협의 통합 37건(46%) 개선(도시공원 내 프리미엄 허용, 일반여행업 창업 등록기준 완화, 수상해저 사업법인 확대 등)
- 유관사업업 업종명칭 변경(유관사업업→ 테마파크업 또는 농어촌업 등), 사실 내 다양한 업종(체육-간행사업)에 대한 관광진흥법 안 인허가 외부 마련
  - 현 관광진흥법은 인허가 제외가 없어서 각 업종마다 별도 신고, 등록해야 함
- 관광(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설계 및 정책모델 발굴(~1971년), 시설기준 정책합, 지정기준 유도 등 제도개선 추진
  - (현)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를 6개로 구분→ (개선) 5개 지구로 창출, 통합(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지구)
-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관리기능 강화(취소 권고, 평가 내실화), 지정 해제 확대 등 실효성 제고
  - 외국인 관광객 수 오건 완화(10만~20만명), 오건 미달 시 지자체에 대한 지정 취소 권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동록자본금 기준환(억원~5천만원)

- 관광산업 통계 정비

- 더욱 정교한 관광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활용적 전망관망성계정(UNWTO·고교양)을 통한 산업규모 측정
  - 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7대업종만 조사되어 정확한 관광산업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
- 일반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 전체 숙박업을 대상으로 숙박여행 통계조사 시행(1992년 2개 광역권 시범조사)
  - 현행 관광사업체 통계조사는 관광진흥법상 업종인 호텔·콘도 외국인도시민박 아영장 등만 포함, 일반·생활숙박업(복지목)·농어촌민박·농식품업·유스호스텔 (여가용) 등 향후 범위 확대(제주도) 등지 포함하여 숙박업계 및 숙박객 대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성 달성 필요
2. 공정한 거래 확산

-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역 확산 (문체부: 조달청)
  - 주요한 불공정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활용되는 법제,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시행
- 관광기업과 거래의 공정성 담보 위한 ‘공정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기업’ 육성 정책 추진
  - 현재 지역사회 자원인력에서 조례를 통해 공정관광 조례, 공정행태 지침 등 반영(서울, 대전 등)
  - 예) 공정관광기업 지정제 운영, 공정관광 박람회 개최 등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 지나친 관광지화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해 주민정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
- 주민주도형 사업체인 ‘관광두레’ 발굴·육성을 통해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 ‘18년 61개지역(기초단위, 367개 사업체(누적) → ‘19년 73개 지역 475개 사업체로 확대하여 800여명 고용창출 목표, 34세 이하 창업자 약 70%로 확대(‘19년 37개)
- 지역별 관광전문인력 관광두레 PD 참여(19년 48명) 및 청년·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에 기여

* (다문화이주여성)여수지역 여행객을 위한 한상자립 식당 ‘여수1923’ 창업
* (경력단절 여성) 시흥 거주 업무들이 모여 지역 관광자원 중심의 ‘와동램’여행사 창업
* (지역대학생, 청년) 홍성 여행 활성화를 위한 청운대학교생들의 여행사, 숙박업 창업
* (지역 예술인) 구례지역 예술인들이 방문객을 위한 ‘토요오플스튜디오’ 창업

Ⅳ. 향후 추진계획

<table>
<thead>
<tr>
<th>세부 과제</th>
<th>소관부처</th>
<th>추진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 (수요확대) 방한 및 국내 관광수요 확대</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① 비자제도 완화 등 출입국 관의 제고</td>
<td>법무부</td>
<td>'19.~</td>
</tr>
<tr>
<td>② 신남방정책 연계 아시안 인도 대상 특별 마케팅</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 연중</td>
</tr>
<tr>
<td>③ 방한관광 혜택제도 전략적 송출</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 연중</td>
</tr>
<tr>
<td>2. 국민 국내여행 지원</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계속</td>
</tr>
<tr>
<td>3. (지역혁신)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1.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22.</td>
</tr>
<tr>
<td>① 글로벌 관광도시</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20.~23.</td>
</tr>
<tr>
<td>② 관광거점도시</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③ 재래형 관광도시 부</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2.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3. 지역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① 스마트 교통</td>
<td>국토교통부</td>
<td>'19.~21.</td>
</tr>
<tr>
<td>② 스마트 쇼핑·안내</td>
<td>중기부</td>
<td>'19.~</td>
</tr>
<tr>
<td>3. (콘텐츠혁신)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1. 한류·이스포츠·공연관광</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25.</td>
</tr>
<tr>
<td>① 한류 데모상품인 K-pop 관광 확대</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25.</td>
</tr>
<tr>
<td>② 이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신규 수요 창출</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23.</td>
</tr>
<tr>
<td>③ 코리아 브로드웨이 조성</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23.</td>
</tr>
<tr>
<td>④ 한류스타 연계 관광상품 개발</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2. DMZ 평화관광</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① 안보 관광을 평화·문화·역사관광으로 전환</td>
<td>국방부</td>
<td>'19.~</td>
</tr>
<tr>
<td>② DMZ 관광자원 및 인프라 확충</td>
<td>국방부</td>
<td>'19.~</td>
</tr>
<tr>
<td>3. 해양애니 관광</td>
<td>문화체육관광부</td>
<td>'19.~</td>
</tr>
<tr>
<td>① 해양관광 권역별 특성화</td>
<td>해수부</td>
<td>'19.~</td>
</tr>
<tr>
<td>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td>
<td>해수부</td>
<td>'19.~</td>
</tr>
<tr>
<td>③ 생 해양 활성화 추진</td>
<td>해수부</td>
<td>'19.~</td>
</tr>
<tr>
<td>세부 과제</td>
<td>소관부처</td>
<td>추진시기</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4. 문화유산 관광</td>
<td>국토부·해수부</td>
<td>'19.~</td>
</tr>
<tr>
<td>5. 의료 관광</td>
<td>복지부·문체부</td>
<td>'19.~</td>
</tr>
<tr>
<td><strong>4. (산업혁신)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strong></td>
<td></td>
<td></td>
</tr>
<tr>
<td>1.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td>
<td></td>
<td></td>
</tr>
<tr>
<td>① 관광스타트업 발굴</td>
<td>문체부·중기부</td>
<td>'19.~</td>
</tr>
<tr>
<td>②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td>
<td>문체부·중기부</td>
<td>'20.~</td>
</tr>
<tr>
<td>2. 산업성장 기반 마련</td>
<td></td>
<td></td>
</tr>
<tr>
<td>① 제조업 수준의 금융지원 확대</td>
<td>문체부·중기부·금융위</td>
<td>'19.~</td>
</tr>
<tr>
<td>② 관광산업 R&amp;D 확대, 인력양성</td>
<td>문체부·중기부</td>
<td>'19.~</td>
</tr>
<tr>
<td><strong>5. (혁신기반)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strong></td>
<td></td>
<td></td>
</tr>
<tr>
<td>1.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td>
<td>관계부처 합동</td>
<td>'19.~</td>
</tr>
<tr>
<td>2.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td>
<td>문체부·조달청</td>
<td>'19.~</td>
</tr>
</tbody>
</table>